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안중현*

요약: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진행중인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을 사례로 주민참여가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참여의식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법론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 모두를 공동체로서의 '마을'로 인식시키고 공동작업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초기에 소규모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실행이 필요하고, 사업단계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었다. 민박이나 숙박시설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거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마을주민들에게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가 시급한 과제로 밝혀졌다. 끝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견학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교육 및 능력개발이 중요하며,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과소화·노령화된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요어: 농촌관광, 농촌관광마을, 진목마을, 뭇생긴 호박축제, 주민참여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휴가분산제, 참살이(well-being) 지향의 생활방식이 변저나가면서 자연을 동경하고 전원을 지향하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과 도로교통의 정비 등 농촌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은 그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농촌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부분 지역사회로서 그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개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추구해 왔다. 그러나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

발 우선이라는 국가 산업정책에 밀려 도시와의 격차를 심화시켜 왔으며, 더욱이 인구감소, 소득기회의 감소,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의 열악함 등의 내적 요인과 다자간 통상협정인 WTO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외적요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다양한 주체들이 그린 투어리즘에 기초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산림청의 산촌체험마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도시와 대비되는 지방문화로서 농촌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체험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여가활동 추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고 농산촌의 수용체제가 정비될 경우 농촌관광은 당일형, 통과형에서 체류형, 반복성 농촌관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학생층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층의 체험관광 수요가 농촌관광 수요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체험관광 및 고령 도시노인의 장기 체재형 여가활동수요가 농촌관광 수요로 이어질 전망이다(김기범, 2005).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유사하게 199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국민 국내관광 총량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9.4%에서 2011년에는 24.1%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공급자 그룹이 조직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농교류의 촉진, 농촌관광시설 현대화, 정보화 등의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관광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마을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마을주민의 조직화와 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촌관광 사업들은 해당 마을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농촌관광마을의 구성에 있어 주민참여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농촌관광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크게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연구는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인지와 선호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급자와 공공부문에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김용근, 2001; 농촌생활연구소, 2000; 조재환, 2003; 박덕병, 2004). 반면 공급자 측면의 연구는 국지적 사례연구에 따라 농촌관광 전반

에 걸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대부분이 이미 정책이 적용된 이후의 사례를 연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주민참여 의식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촌관광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이경희(2004)는 농촌관광에 대한 농촌지역주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김혜민(2006)은 최근 각종 농촌마을개발 정책 논의의 주축이 주민참여의 문제와 직·간접적 관련을 가지는 만큼,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실태 및 성과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시작되는 마을에서 주민참여가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을 사례로 주민참여의식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당위적 수준에서 논의되어 온 주민참여를 현장에서의 실증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제점의 파악과 더불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¹⁾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17일(토) 하루간 마을현지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변수와 설문항목의 구성은 송미령(2004)의 주민참여형 개발모형사업의 마을주민용 설문지를 원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진목마을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의 대표 이미지(어메니티 자원)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목표, 주민참여 태도와 사업참여 이유,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활동, 사업후 마을에 나타날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자기 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지로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기 곤란한 고령 응답자의 경우에는 훈련된 조사자가 도와 설문지를 완성하게 하였다. 또한 개인별로 설문

조사를 마친 후 인터뷰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문지는 51부를 회수하여 이 중 조사에 부적합한 6부를 제거하고 총 4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에 대해서는 SPSS 1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로 수량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농촌관광마을의 전개와 주민참여

1) 농촌관광마을의 개념과 전개

농촌관광마을의 개념은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에는 농산물 판매, 가공특산물 생산·판매, 관광·음식물 판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이다. 구체적으로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 전통테마마을 등을 말한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마을인 장흥군 진목마을은 농

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2006년에 선정되어 조성되었는데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추진방향은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되,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자연·문화자산, 농업 및 농촌체험활동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계획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게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를 유도한다.

결국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환경과 테마가 있는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하

표 1. 각 부처별 농촌관광마을 추진 정책

사업명	주관부처	근거법	출발 연도	사업비 (국비)	대상 범위	주사업내용	사업특징	비고
아름마을 가꾸기	행정 자치부	행정 자치부	2001	10억	마을	정주기반 확충 도농교류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소득증대를 위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공모방식 현재중단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부	농업농촌 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2002	2억 (1억)	마을	도농교류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녹색관광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공모방식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 진흥청	농업농촌 기본법 농촌진흥법	2002	2억 (1억)	마을	도농교류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녹색관광 추진	공모방식 추진과정 독특성 (생활지도사)
어촌 체험마을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 발전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2001	10억 (5억)	마을	기반구축 사업 어촌리더 육성사업	어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시·도 시행 해양수산부 심사

자료 : 송미령·성주인, 2004, 재구성

표 2.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현황

구분	전체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18	2	0	2	2	2	2	2	2	2	2
2003	26	4	1	4	3	2	4	1	4	2	1
2004	32	1	0	9	1	6	4	3	4	3	1
2005	47	8	0	7	2	6	8	4	5	5	2
2006	67	7	0	7	4	15	9	6	9	8	2
합계	190	22	1	29	12	31	27	16	24	20	8

자료 : 농림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며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마을의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이다.

200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농촌관광사업들은 기획단계부터 주민발의에 의한 공모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의 변화로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을주민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마을의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해당 마을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주민전체의 의지보다는 일부 지도층의 의지 또는 관계공무원의 경쟁의식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진정한 주민참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에 시도별로 대상지를 추천받아 마을별 사업계획설명회와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마을 선정 심의회를 거쳐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 토고미마을 등 18개 마을을 선정(녹색농촌관광의 조기 파급효과 유도를 위해 도별 2개 마을 선정)한 바 있다. 2003년에는 26개 마을, 2004년에는 32개 마을, 2005년에는 47개 마을, 2006년에는 67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 2006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90개 마을이 선정·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마을은 충남이 31개 마을로 가장 많고 전남은 16개 마을로 전체에서 8.4%를 점하고 있다(표 2).

2) 주민참여의 기본사고

이연택(2004)은 관광정책에 있어서 주민참여²⁾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수익창출과정에서의 참여),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주민교육과정에서의 참여)이 요구되며 이를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민참여의 개념을 ‘의사결정과정, 수익창출과정, 주민교육과정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행동’으로서 정의하였다.

조록환(2003)은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참여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농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도 풍부해야 하겠지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훌륭한 리더가 있어 주민들이 협동하여 마을을 가꾸고 방문객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혜민(2006)은 마을계획은 마을에 따라 공동체 특성과 촉발배경, 추진주체의 연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의 계획 모형이 수립되어질 수 없다고 논하면서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요나 요구에 대응하는 주민참여형 계획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정록(2005)은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마을주민과 마을자원, 방문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외부자본 또는 기업가 자본에 의해 마을환경이 이용·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사고라고 하였다.

3. 장흥군 진목마을의 특징

1) 일반현황

본 연구를 위한 대상지는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진목마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진목마을은 2004년도에 장흥군이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생태체험 마을에 선정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명 ‘호박나라’로 불리는 진목마을에는 소설가 이청준의 생가가 있어 연중 문학동호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인 ‘천년학’의 촬영세트가 마을 앞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을 찾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또한 향토산업에 장흥군의 호박이 선정되었는데 진목마을이 사업의 거점마을로서 향후 3년간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진목마을은 마을축제인 못생긴 호박축제를 통한 마을 알리기와 호박의 생산·가공·유통과 더불어 농촌관광마을까지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결속은 물론, 마을전체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의 인구는 남자 153명, 여자 179명으로 총 332명이며, 가구수는 농가 112호, 비농가 17호로 총 129호이다. 경지면적은 161.7ha(논: 129.4ha, 밭: 32.3ha)이고 임야면적은 42ha이며 무농약 재배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30농가에서 감자, 콩, 수수, 관상호박을 재배하고 있다. 주요 농특산물은 호박, 간척지쌀, 감자, 쪽파, 양파, 고추, 고구마, 당근, 유자, 마늘 등이다.

또한, 넓은 논·밭은 특용작물(쪽파, 감자, 호박, 양파, 마늘)의 주산지이며 호박을 이용한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축·임산물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농촌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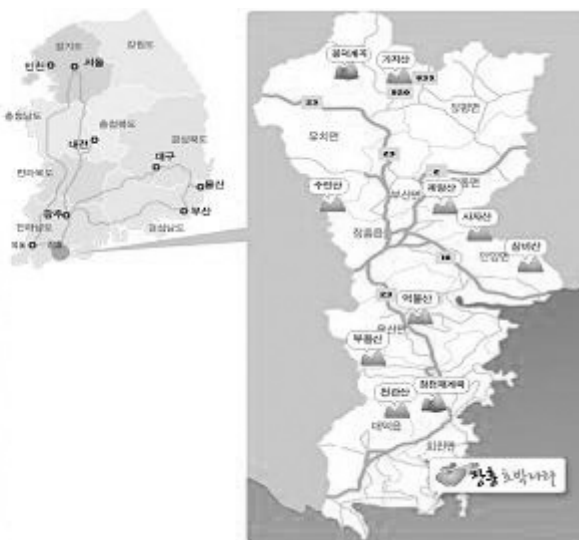


그림 1. 마을 전경과 위치

표 3. 마을 현황(2006년)

가구수(호)			인구(명)			경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129	112	17	332	153	179	161.7	129.4	32.3

자료 : 장흥군 회진면사무소

2) 마을자원 현황

마을의 주요자원은 무형문화재로 정월 대보름날 밤 마을 사장나무 아래서 제를 모시는 당산제가 있으며 가뭄이 극심하면 당산제에서 산신령에게 제를 지냈던 기우제와 농악,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있다. 유형문화재로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목교회가 있으며 소설 서편제의 작가 이청준선생의 생가가 있다. 마을에서는 이청준선생의 생가 복원 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이를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보고, 즐기고, 쉬는 체험 및 체류형 관광수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작품인 영화 “천년학”의 촬영세트가 있으며 눈길, 축제, 선학동 나그네 등 주제가 있는 문학작품 무대코스가 있다.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은 호박을 이용하여 특색있는 녹색농촌 체험 테마 관광지의 최적지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다.

3)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못생긴 호박축제는 진목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축제로서 2005년에 처음 시

작되었고, 2006년에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제2회 축제를 개최하였다.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는 지자체 주최가 아닌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는 호박을 테마로 한 체험·체류형 농촌관광마을 조성, 친환경 웰빙이미지 구축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는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표 4).

지금까지 2회 개최된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의 성과를 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는 투입 대비 수입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 호박을 테마로 한 마을의 홍보와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축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를 통한 홍보도 수십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 최초로 호박을 테마로 열린 축제로서 많은 관심 속에서 홍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성남과 목포, 순천 등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미니호박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호박을 직거래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올해로 제



그림 2. 호박터널 · 이청준 생가 · 천년학 촬영세트

표 4.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개요

주최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농림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사회단체
기간	2006. 7. 5~7. 9(5일간)
장소	장흥군 회진면 호박나라 진목마을
주제	신데렐라와 함께 떠나는 호박나라 체험여행
전시행사	못생긴 호박 품평회 및 시상식 세계 각국 호박 전시회 호박나라 영상물 상영
체험행사	호박마차타기, 신데렐라체험, 호박족욕체험, 호박터널걷기 등
이벤트	정남진 장흥에서 못생긴 호박을 찾아라! 호박나라 진목마을 『못생긴 호박 선발대회』 호박나라 금혼식(결혼 50주년 부부 대상)
먹거리 장터	호박수제비, 호박식혜, 호박튀김, 약호박찜, 호박막걸리, 호박죽, 호박즙, 호박분말, 단호박아이스크림, 호박상품 판매 등

자료 : 2006년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내부자료

3회(2007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진목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마을축제로서 도시민을 유인하여 마을을 알리고 호박 등 농산물을 판매하여 마을 소득을 증대하는 등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축제가 아닌 마을차원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마을 축제라는 점에서 향후 그 가능성이 주목된다.

4. 주민참여의식 분석

1) 마을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성별, 연령, 거주연수, 마을직책(복수응답)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33명(73.3%), 여자가 12명(26.7%)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20대 1명(2.2%), 30대 7명(15.6%), 40대 16명(35.6%), 50대 5명(11.1%), 60대 7명(15.6%), 70대 이

상이 9명(20.0%)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29세에서 최대 79세로 전체 평균연령은 52.4세로 나타났다. 또한 3~50대 청장년층은 62.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를 주로 청년회원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과소화와 노령화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장년층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주연수는 태어나서부터 17명(37.8%), 5년 미만 1명(2.2%), 5~10년 3명(6.7%), 11~20년 8명(17.8%), 21~30년 5명(11.1%), 31년 이상 11명(24.4%)으로 나

표 5.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3 여자 12
연령	20대	1 2.2
	30대	7 15.6
	40대	16 35.6
	50대	5 11.1
	60대	7 15.6
	70대 이상	9 20.0
거주기간(년)	태어나서부터	17 37.8
	5년 미만	1 2.2
	5~10년	3 6.7
	11~20년	8 17.8
	21~30년	5 11.1
	31년 이상	11 24.4
마을 직책(복수응답)	마을 이장	5 11.1
	마을 지도자	3 6.7
	부녀회장	3 6.7
	청년회장	4 8.9
	친목계 등의 회장	1 2.2
	노인회장	1 2.2
	체험마을 추진위원장	1 2.2
	기타	5 11.1
	말은 적 없다	30 66.7

자료 : 설문조사

타나 대체적으로 원주민이 많은 편이며 마을로의 진입 인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직책의 경험 여부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마을 이장직 등 15명(33.3%)이 직책을 경험하였으며 30명(66.7%)은 직책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사업의 목표 인식

주민들에게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호박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48.9%(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청준생가라고 18명(40.0%)이 응답하였다. 못생긴 호박축제를 통해 얻은 인지도와 함께 마을주민들도 호박을 통한 마을발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문학지망생과 동호인들이 꾸준히 마을의 이청준생가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학마을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호박과 문학을 연계활용하는 차별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목표에 대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신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목표를 이해(68.9%)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개선으로 답한 빈도는 8.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표 2).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궁극적 목표는 과소화·낙후화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농가소득

을 확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신규 소득작목 개발은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에 있어 수단이 되어야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주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와 사업참여 이유

주민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참여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참여가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이 참여하면 일 진행이 느리니까 마을 대표 몇 명의 주도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나 주민 대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업참여를 통한 관광마을 만들기의 기본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마을 리더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인식하게 하고 공동작업 속으로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田村明, 1987).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46.7%),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마을 일에 참여하는 것이 보람이 있어서(35.6%), 지금

표 6. 마을의 대표 이미지와 사업의 목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마을의 대표이미지	호박	22	48.9
	이청준생가	18	40.0
	진목교회	4	8.9
	서당터	1	2.2
사업의 목표인식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개선	4	8.9
	마을의 농촌다운 모습 유지 및 보존	5	11.1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신규 소득작목 개발	31	68.9
	도시민 위한 여가 휴양시설 조성	5	11.1

자료 : <표 5>와 같음

표 7.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와 사업참여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주민참여 태도	실제 이익을 얻을 사람이 주도함	1	2.2
	마을 대표 몇 명이 주도함	8	17.8
	효율이 낮더라도 주민이 함께 해야 함	3	6.7
	주민참여가 가장 효과 큰 방법임	33	73.3
사업참여 이유	소득증대에 직접적 도움	21	46.7
	미래 효과를 위해	6	13.3
	참여의 보람이 있어서	16	35.6
	혼자만 빠질 분위기가 아니어서	2	4.4

자료 : <표 5>와 같음

당장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서(13.3%),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나 혼자만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마을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를 보면, 농촌관광마을이 조성되더라도 바로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기다려야 할 것이며 마을 주민들의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사업초기단계에는 소규모라도 마을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4)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활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마을 회의 참석 이외에 주민참여가 높았던 활동으로는, 주민교육을 받음(84.4%), 다른 마을 견학을 다녀옴(73.3%), 설문조사에 응함(51.1%)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40.0%),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시했다(22.2%)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했다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진행 단계에서 마을을 위

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계획을 세울 때 마을에 얽힌 역사나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 나무나 꽃 심기 등 마을 가꾸기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견이 4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겠다는거나 공사 과정을 감독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하는 일을 질문한 결과 마을 공동시설 관리에 참여한다(80.0%), 방문객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겠다(77.8%),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의 운영에 참가한다(64.4%), 도시민들이 농사 체험을 하도록 체험농장을 운영한다(5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박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은 22.2%에 불과했다. 농촌관광마을에서 올릴 수 있는 소득원은 숙박과 식사제공을 통한 민박수입, 마을의 특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험비 항목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진목마을은 현재 민박을 운영하는 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박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민박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민들이 사업 참여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촌관광마을의 수입에서 민박수입이 차지

표 8.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단계별 주민참여 활동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획단계 주민참여 활동	다른 마을에 견학을 다녀옴	33(73.3)	12(26.7)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민교육을 받음	38(84.4)	7(15.6)
	계획 수립 일환의 설문조사에 응함	23(51.1)	22(48.9)
	마을 대표나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18(40.0)	27(60.0)
	계획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	10(22.2)	35(77.8)
진행단계 주민역할	마을에 얽힌 역사나 자원 등 정보 제공	26(57.8)	19(42.2)
	마을 가꾸기에 직접 나섬	21(46.7)	24(53.3)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제공	3(6.7)	42(93.3)
	마을 조경에 필요한 자원 기증	5(11.1)	40(88.9)
	주택의 지붕, 담장, 마당 등을 가꾸고 개량	8(17.8)	37(82.2)
	건물을 지을 때 노동력 제공	7(15.6)	38(84.4)
	공사 과정 감독 및 의견 제시	6(13.3)	39(86.7)
운영단계 주민참여	활동민박이나 숙박시설 운영	10(22.2)	35(77.8)
	방문객에게 음식 판매	18(40.0)	27(60.0)
	마을 공동시설 관리 참여	36(80.0)	9(20.0)
	방문객에게 농산물 판매	35(77.8)	10(22.2)
	농사체험 위한 체험농장 운영	26(57.8)	19(42.2)
	마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도움	17(37.8)	28(62.2)
	사업 위한 주민조직 운영 참가	29(64.4)	16(35.6)

자료: <표 5>와 같음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문객이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수용태세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문객이 늘어날 때까지는 마을 공동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숙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마을공동의 소득이 될 것이고 관리나 유지 등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된다. 일본에서도 그린투어리즘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농가에 숙박하는 경우는 드물고 체험농촌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숙박일수도 짧기 때문에(溝尾良隆, 2001), 민박수요를 확대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업시행으로 나타날 영향 및 효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이루어진 후 마을에 나타날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예전보다 늘어날 것이다(91.1%), 마을의 모습이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91.1%), 마을이 유명해지고 외부에 많이 알려질 것이다(88.9%), 주민들이 사업시행 이전보다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설 것이다(84.4%)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과 부동산 가치의 변동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결과 마을에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낮게 응

표 9.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후 마을에 나타날 영향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긍정적 영향	마을을 찾는 방문객 증가	41	91.1
	마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	8	17.8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 편리	27	60.0
	주민들의 마을 일에 대한 관심 증대	38	84.4
	마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함	41	91.1
	집을 새로 짓고 고치는 등 각종 개발행위 증가	32	71.1
	마을이 대외적으로 유명해지고 알려짐	40	88.9
부정적 영향	주민간 갈등 증폭	3	6.7
	새로 조성한 시설이 마을과 부조화	2	4.4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과도한 증가	5	11.1
	마을방문객 증가로 일거리만 증가	14	31.1
	이익이 몇몇 주민에게만 돌아감	8	17.8

자료 : <표 5>와 같음

답하였는데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일거리만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익이 몇몇 주민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시행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주민의 응답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추진조직과 마을사무장의 노력이 요구된다.

6)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질문한 결과, 주민 교육, 다른 잘되는 마을 견학 등의 기회를 더욱 늘인다는 의견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15.6%), 마을 공동의 일이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서 일을 맡긴다(8.9%)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통해 발전하는 마을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공무원)의 관심

표 10.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교육, 견학 기회 확대	32	71.1
사업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	7	15.6
예산 집행, 공사 감독 등 재량권 확대	0	0.0
순번을 정해서 일을 맡김	4	8.9
실제 이익을 볼 사람이 주도	0	0.0
기타	2	4.4

자료 : <표 5>와 같음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의 능력 개발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실천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5. 요약 및 결론

농촌관광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식은 방문객의 만족과 지속가능성의 성공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농촌관광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식을 파악하여야 한다(이경희, 2004).

본 연구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주민참여 의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인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를 사례로 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의식행태를 고찰하였다. 연구내용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목마을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의 대표 이미지는 호박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이청준생가와 함께 두가지 테마를 연계활용하는 차별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목표를 농산물 판매로 개척 및 신규 소득작목 개발로 인식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궁극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방법론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는 주민참여가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을 대표 몇 명이 주도하면 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어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인식하고 공동작업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사업참여 이유에 있어서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농촌관광마을의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다리는 여유와 함께 추진위와 마을사무장은 사업초기에 소규모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실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활동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다. 마을 대표나

자문단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민박이나 숙박시설의 운영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업후 마을에 나타날 영향으로 마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가 시급한 과제로 밝혀졌다.

일곱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 견학 기회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농사만 짓고 살았던 주민들에게 외부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교육과 마인드를 심어주는 주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주민의 능력개발과 무엇보다도 마을주민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농촌관광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을 유인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연성관광(soft tourism)이며, 국내외적으로 녹색 및 생태관광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과소화·노령화된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이정록·안종현, 2005). 따라서 농촌관광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존적 지역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내발적 발전론(endogenous development)³⁾에 기초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농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심층적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마을마다 마을특성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행의 연구결과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 1) 설문조사에는 연구자와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학생 4명이 참여하였다.
- 2) 주민참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농촌관광 관련 시범사업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3) 宮本憲一은 1989년 그의 저서 '환경경제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내발적 발전론을 "지역의 기업·조합 등 단체나 개인이 자발적 학습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자주적인 기술개발을 기초로 지역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그 지역의 문화에 뿌리박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지방자치제의 손으로 주민복지를 향상시켜 가는 지역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박경, 2001).
- 4) 마을특성은 마을별로 상이한 인적자원 구성과 이장·추진위원장·체험마을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집성촌 여부에 따른 마을공동체 의식의 정도, 마을자원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이 등을 말한다.

참고문헌

김기범, 2005, "농촌관광과 어메니티", <http://www.seri.org>

김남조, 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관광학연구* 28(1), pp. 263-281.

김태근, 2001,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국토*, pp.22-29.

김혜민, 2006,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전개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3), pp.1-11.

박덕병 외, 2004, "농촌관광 시장 세분화 연구", *관광학연구* 28(2), pp.193-212.

박시현, 2003,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263호, pp.18-30.

송미령·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연구자료 R4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19-126.

이경희, 2004, "농촌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문화관광연구*, 6(1), pp.340.

이연택, 2004, "국가관광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8(3), pp.143-160

이재준·이상문,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 3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pp.39-55.

이정록, 2003,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녹색관광 전략: 전남 함평군을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35(1), pp.31-53

이정록·안중현, 2005, "그린투어리즘과 관광마을 만들기 : 이론과 실제", *지리논총* 45,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pp.197-209.

이희찬 외, 2003, "농촌관광 수요모형 개발 연구", *관광학연구* 27(2), pp.197-212.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조재환 외, 2003,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0(3), pp.387-4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pp.30.

LG경제연구원, 2006, 2010 대한민국 트렌드, 서울: 한국경제신문, pp.181

岡本伸之 편, 최규환 역, 2003, *관광학입문*, 서울: 백산출판사.

田村明, 강혜정 역, 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서울: 소화.

東徹外, 1999, *持續可能な観光と地域發展へのアプローチ*, 泉文堂.

Williams, S., 1998, *Tourism Geography*, Routedge, London.

<http://www.jinmok.com>

<http://www.tourlab.com/>

<http://www.seri.org/>

교신저자: 안중현,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Tel: 062-530-2680, Fax: 062-530-2689, E-mail: jhahn@chonnam.ac.kr

Correspondence: Zong-hyun Ahn,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Tel: 062-530-2680, Fax: 062-530-2689, E-mail: jhahn@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07년 5월 17일

최종접수일 2007년 6월 5일

Rural Tourism Village Building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 In Case of Jinmok Village in Jangheung County

Zong-Hyun Ahn*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level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Jinmok village, located in Jeonnam province Jangheung-gun Hwejin-myeon, and presents suggestions to inspire residents' awareness and enhance participation. This village has been developing a Green Rural Tourism Village Building Project under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residents recognizing they are a "community" has been emphasized as well as promoting the residents cooperation as a community.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research ways to inspire the village to realize the ultimate goal of building rural tourism village. For this, in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profitable work needed to be provided for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onstructive participation by all residents is essential in each stage of the project's development. Operating a farm stay or running lodging facilities are op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Moreover, it is imperative to immediately establish a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those who might have a negative or impartial opinion about the project, by providing education. The most efficient way to encourage residents' participation is to support various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ield trips. Through these efforts, the residents are able to raise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develop their man-power as well. Once more, providing an incentive for residents' reliance is the kernel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state of Korean rural areas, which are rapidly aging and becoming depopulated, green tourism can be a practical alternative for continuing rural development.

Keywords : Rural Tourism, Rural Tourism Village, Jinmok Village, Ugly-looking Pumpkin Festival, residents' participation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hahn@chonnam.ac.kr)